

# 신안군 대표 농산물 시금치 '섬초' 경쟁력 강화에 박차

### 잎 넓고 두꺼워 일반 시금치에 비해 맛 좋아 재배 전과정 기계화 추진해 노동력·생산비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추석 명절을 겨냥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시금치 파종을 시작했다.

신안군 시금치 재배면적은 지난 2020년 기준 1천133ha로 섬초라는 브랜드로 출하되며 잎이 넓고 두꺼워서 일반 시금치에 비해 품질과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좋은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인력에 의존하는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생산되고 있고, 농촌 사회 고령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더해져 재배면적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안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금치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추진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 내에서도 시금치 주산지인 비금면과 도초면의 서로 다른 토양환경을 고려해 트랙터부착형 파종기 및 수확기, 관리기 등 맞춤형 농작업기를 도입했으며, 수확 노동력을 90% 이상 절감하고 수량은 30% 이상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금면과 암대면에는 시금치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으로 연중 시금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시금치는 겨울작물로 여름철 노지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차광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kg 당 1만2천원 정도로 겨울 시금치의 2~3배 가격에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추석 명절을 겨냥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시금치 파종을 시작했다. 신안군 시금치 재배면적은 지난 2020년 기준 1천133ha로 섬초라는 브랜드로 출하되며 잎이 넓고 두꺼워서 일반 시금치에 비해 품질과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좋은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함평, 반려식물로 심리 방역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리 방역에 나섰다.

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나눔 심리방역!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함평군 생활개선회(회장 유순옥)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이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며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했다.

반려식물을 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 우울했는데 식물들을 돌보며 소일거리가 생겨 적절하지 않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위축돼 무료해진 어르신들의 일상에 반려식물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위탁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지역맞춤형 안렴캠페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랑이 함께하는 함평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용운 기자

## 목포문학박람회, 참여프로그램 준비

### 문학공연·체험 부문 운영자 31개팀 선정

목포시가 '2021 목포문학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의 다채로운 경험을 위해 참여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문학인의 문학 활동을 장려하고, 박람회 관람객의 창의적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프로그램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는 전국에서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준비한 팀들의 응모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목포문학박람회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엄정한 과정을 거쳐 대중성, 적합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 31팀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문학공연 부문에는 아트 북 매지쇼, 문학이 스며든 가곡 연주, 인형극, 퓨전국악 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문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정됐다.

체험 부문에는 미니 그림책 만들기, 문학작품이 들어간 액자, 책갈피 만들기 등 문학을 소재로 소소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뽑혔다.

시는 '헌 책 플라마켓' 공모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문학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이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학 주제로 전국 최초의 박람회인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원도심 일대,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개최된다.

/박성태 기자

## 영암군 무화과, 품질로 소비자 입맛 당겨

### 여름전정 등 고당도 무화과 생산 기술지원 강화

영암군은 지역특화 과수인 무화과가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화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른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동해에 따라 수확량이 30~40%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

간이 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맛있는 과일 소비 욕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무화과는 햇빛이 좋은 8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돼 품질이 최상인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당도

14브릭스 내외의 최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해 여름전정, 미량요소 시비 등 핵심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여름전정은 햇빛이 과실 밑까지 가도록 나무 윗부분 가지를 정리해주는 것이다. 그 효과로 기능성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면서 당과 맛을 향상시킨다. 또한, 미량요소 시비는 무화과 특유의 향을 만들어 과일의 풍미를 더하며 저장성을 올려준다.

/윤규진 기자

## 강진읍 지사협, 함께 행복한 생일상 나눔

### 홀몸 장애인 가구 방문해 떡·과일·선물 전달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일, 김동일)는 지난 26일 생일을 맞은 저소득 홀몸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일일 가족으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읍지사협은 강진읍 내 혼자 생일을 보내야하는 사례관리대상

자 가구를 방문에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례관리대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생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내마을 최 모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며 장애와 질병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힘

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강진읍지사협 위원장과 맞춤형 복지팀은 대상자 집을 방문해 떡, 과일 등으로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내의를 선물했다.

최 모씨는 "가족도 없어 항상 혼자 생일을 보냈는데 올해 생일은 고마운 분들이 오셔서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운재 기자

## 무안군, 수산종자 방류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8월 26일과 27일 일요일 우비선착장, 청계면 월선저수지, 해제면 태원간척지에 내수면 수산종자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수산종자는 동자개 12만 3천여 마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지역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자원남획, 어장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에 적극 동참했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송규 일로읍 청호어촌계장은 "이번 종자방류는 지역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토종어종의 고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